

말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카워로 보는 名畫 이야기

뒷담화(gossip)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

뒷담화는 눈앞에 없는 상대를 향해 하는 험담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피어나는 말풍선들은 때로는 호기심이고 흥미 그리고 잠깐의 재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호기심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이런 일들은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주로 발생하지만, 간혹 몇몇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즐겨하는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도 하다.

필자가 경험해 본 이들을 보면 대부분은 마음에 부재가 있을 경우에 남의 험담을 시작하는 듯하다. 특히나 남의 흉에 집착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반면 마음이 편하고 넉넉한 이들은 대부분이 남을 칭찬하거나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했었다. 이렇듯 필자의 경험상 그랬지만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지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 뒷담화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뒷담화는 왜 하는 것일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누구나가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파장도 이미 알만큼은 알고 있다. 그러나 왜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일까?

가장 강력한 동기중 하나는 집단 내 결속이다. 공통의 대상을 함께 비판함으로써 그들끼리 더 강한 유대감 형성에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기회를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기도 하다.

험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꼬집는 노먼 록웰의 1948년 풍자화를 보자. 15명의 인물이 한 장면에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도 The Gossips(수다쟁이들)이다. 특히 이 작품은 가십의 파괴력과 인간 심리를 절묘하게 풍자하고 있다.

마주 보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를 마주 보며 혹은 전화기를 붙잡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목과 생생하게 표현된 표정을 통해 이들이 남을 험담하고 있는 중인 것을 단숨에 알



노먼 록웰 작 'The Gossips' (수다쟁이들)

〈위키피디아 검색〉

아챌 수가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한 화면에 담아내는 데 재능이 있었던 록웰의 작품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작은 험담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어떻게 외전되고 부풀려지는지 그리고 결국 당사자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의 촉매제 또한 이에 못지않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말로 치고받는 경쟁과 평판 싸움은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오고 간 ‘험담’과 ‘경쟁’은 결국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배경이 된다.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에게서 시작된다.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쓰인 황금 사과를 던지자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서로에 대한 모욕과 비판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 말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며, 여신들은 없는 약속을 만들어내는 등 경쟁에 심판을 맡은 파리스를 흔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성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주겠다는 열토당도 않은 약속을 하게 되고, 파리스는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오게 된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그리스 연합군을 모아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10년에 걸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야 만다.

결국 사소한 여신들의 말 한마디가 불신을 키우며 집단 갈등으로 폭발하게 된 셈이다. 헤라와 아테나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낫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들 전체의 갈등만 키웠다.



조반니 도메니코 티에폴로 작 '트로이 목마의 행군'

〈위키피디아 검색〉

‘남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처럼, 뒷담화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해치고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주겠다고 한 과장된 말, 달콤한 유혹, 편향된 이야기와 이런 말에 흔들린 파리스의 선택이 도시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관계를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말은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투명한 말, 정면의 대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비록 지식이나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말 많은 것을 꼬집을 때 쓰는 말이지만 내용 없이 남을 험담하며



보티첼리 작 '프리아마라' 〈위키피디아 검색〉

시끄럽게 구는 이들에게 하기 딱 적절한 말이라 생각된다.

인류의 지혜가 녹아든 탈무드를 읽어보면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해치게 된다. 험담을 하는 장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뒷담화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방이나 험담이므로, 발각될 경우 피해자와의 신뢰가 즉각적으로 깨진다. 또한 뒷담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 또 내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불신을 심어주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뒷담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평판이 실추된 피해자는 모욕감, 불안감,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뒷담화는 피해 당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적인 반론이나 해명이 불가능하기에 기본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뒷담화의 해악을 살인에 비유하며, 관련된 모든 이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속담보다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은 오고, 계절은 돌고 돌아 꽃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기에 꼭 새겨야 할 것이다.

/이현남 (문화비평·캘러리현대표)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